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견고한 수요
- Bloomberg: 딜로이트 조사, “올해 하반기 휴가 시즌 지출 14% 증가” 예상

[미국 금융]

- Bloomberg: 미국채 수익률 상승... 강한 소매 판매 보고서 여파
- Bloomberg: 골드막 삭스 3분기 수익 33% 감소... 소비자 대출 약화로

[미국생활]

- WSJ: 미국 연금 시스템 수준, 점수로는 C+
- Bloomberg: 팬데믹 이후, 미 재택 근무율 가장 낮다

[뉴욕시]

- CNN Business: 뉴욕시정부 ‘인공지능 액션 플랜’ 시행한다

[미중무역]

- WSJ: 미, 중국에 AI 칩 수출 제한... 미 기업들 힘들 듯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엔터테인먼트 비용,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 되다
- WSJ: MBA 채용 공고, 기술·금융·컨설팅 부문에서 감소하다
- CNN Business: 대형 소매 약국 체인들 문을 닫는 이유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Retail Sales Top Forecasts in Sign of Durable Consumer Demand

미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 견고한 수요

- 9월 미 소매 판매가 전망치를 경신해 3분기에 끝나가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가계 수요를 보이고 있다.
- 오늘 수요일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소매 전체 구매 가치가 8월의 0.8% 이후에 9월에는 0.7% 늘었다. 가솔린을 제외한 판매는 0.7% 늘었다.
-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때 식품 서비스, 자동차 딜러, 건축 자재점, 정유소 등을 제외한 이른바 통제 그룹 판매(control group sales)는 예상보다 좋은 0.6% 상승했다.
- 13개 소매 카테고리 중에서 8개 구매가 늘었는데 식당, 자동차 딜러, 개인용품점에서 증가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Holiday Spending to Grow 14% This Year, Deloitte Survey Shows

딜로이트 조사, “올해 하반기 휴가 시즌 지출 14% 증가” 예상

- 올해 홀리데이 시즌 지출은 작년 같은 시즌보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간 소득층의 경우 학자금 용자 및 임금 상승률 하락 때문에 지출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딜로이트가 지난 8월말에서 9월초까지 미국인 4천3백3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쇼핑객은 올해 평균 1천6백52불을 지출해 그 규모가 작년보다 14%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 가계 수입이 5만불에서 9만9천9백99달러 연소득자의 경우 올해 26% 더 늘어나 1천5백34불, 20만불 이상 연소득 가계의 경우 22% 늘어난 3천9백22달러 지출 계획을 갖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US Yields Rise as Hot Economic Data Fuel Fed Bets: Markets 미국채 수익률 상승... 강한 소매 판매 보고서 여파

-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달러와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 오늘 화요일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견조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가능성 때문이다.
- 오늘 화요일 오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2 베이스 포인트 늘어난 4.83%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반면 나스닥 100은 엔비디아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정부의 고급 Si칩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뱅크오브 아메리카 수익은 최소 10년만에 초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Goldman Sachs, Pulling Back From Consumer Lending, Posts 33% Profit Drop

골드막 삭스 3분기 수익 33% 감소... 소비자 대출 약화로

- 골드막 삭스의 3분기 수익이 줄었다. 소비자 대출 사업 일부 매각에 따른 손해와 자산 및 자산관리 부문의 큰 손실 때문이다.
- 즉, 3분기 수익은 21억달러로 작년에 비해 33% 줄었다. 이는 주가가 5달러 47센트에 해당되며 분석가들의 예상치 5달러 42센트를 상회했다. 매출은 작년보다 1% 줄어든 1백18억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1백12억달러를 여전히 상회한 수치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WSJ: The U.S. Gets a C+ in Retirement****미국 연금 시스템 수준, 점수로는 C+**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은퇴 시스템의 성적은 C+로 네덜란드와 호주, 스웨덴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최근 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지수에 따르면 미국은 전체 조사대상 47개국에서 22번째 국가.
- 미국이 은퇴하는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주로 소셜시큐리티, 401(k), 개인 은퇴구좌를 통해서이다.
- 미국의 경우 고용 시스템에서 화이트칼라 직종에 연금은 좋은 반면 기그 (gig) 노동자나 블루칼라 직종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은퇴를 보장하는 자금의 상당부분이 점차 개인의 책임 점유율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American Work-From-Home Rates Drop to Lowest Since the Pandemic**팬데믹 이후, 미 재택 근무율 가장 낮다**

-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미 인구 조사국 Household Pulse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정의 26% 근로자들이 적어도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도 정점을 찍었던 37%에 비하면 가파르게 감소한 것이다.
- 이런 재택근무의 감소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려는 계속된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 기업들은 재택근무가 수익을 감소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경제불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 때문에 앞으로 재택 근무율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CNN Business: New York City unveils 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ion plan'**

뉴욕시정부 '인공지능 액션 플랜' 시행한다

- 시장 Eric Adams는어제 월요일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플랜에 따르면 AI 도구와 그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시 공무원들에게 AI 기술을 향상시키고,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이러한 AI 기술들의 책임있는 시행을 약속했다.
- 구체적인 첫단계로서 'AI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40개의 액션 중에서 29개를 내년에 시작하거나 끝맺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시행 관련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중무역]

WSJ: U.S. Tightens Curbs on AI Chip Exports to China, Widening Rift With U.S. Businesses

미, 중국에 AI 칩 수출 제한... 미 기업들 힘들 듯

- 요지: 이같은 방침으로 엔비디아와 인텔, 중국 시장에 고급 반도체 판매 어려워진다.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를 구입하려는 중국의 수요와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를 미국에 판매하려는 미 기업체들과의 마찰이 커지게 될 상황이다.
- 연방상무부의 오늘 화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AI 칩 수출을 크게 제한해, 엔비디아와 인텔 등 미국 회사들이 기존 제품을 미국에 판매하거나 규정을 피해 새로운 칩을 도입하기가 힘들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같은 조치는 작년에 발표한 수출 통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출 통제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으며 중국 정부와 관계가 악화되었다.
- 이같은 미국 조치는 AI칩이 중국의 군사적인 활용에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이 핵심 국방 기술 분야에서 크게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기업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떤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토록하고, 고급 칩의 경우 라이선스 없이 수출할 수 없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It's Getting Too Expensive to Have Fun 엔터테인먼트 비용,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 되다

- 엔터테인먼트 비용 증가가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서부터 디즈니 테마파크 같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비용이 올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편인플레이션(funinflation)” 이라고 부른다.
- 월스트리트 저널과 크레딧 카르마(Credit Karma)가 9월 초에 대략 1천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거의 60%의 미국인들이 올해의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평소 지출을 절약해야 했다고 말했다.
- 37%의 응답자들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공연 티켓 가격을 지불할 여유가 없으며, 20%의 응답자들은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위해 빚을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 미 노동 통계국 소비자 지출 조사에 따르면, 공연장 티켓과 같은 입장료는 2022년도에 식품 물가나 휘발유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했으며, 올해도 계속되었다

WSJ 기사

WSJ: M.B.A. Job Offers in Short Supply as Tech, Finance, Consulting Dial Back Recruiting

MBA 채용 공고, 기술·금융·컨설팅 부문에서 감소하다

- 학교별 채용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상위 MBA 신입생의 70%를 채용했던 기술, 금융, 컨설팅 분야의 기업들이 채용을 더디게 진행하거나 채용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MBA에 지원한 학생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 기업들이 올해 가을에 MBA 출신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채용 시즌과 대비되는 것이다.
- MBA 학생들의 주요 채용 기업인 아마존은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업 대변인은 사업상 채용 필요성이 더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정규직 채용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 기사

CNN Business: CVS, Walgreens and Rite Aid are closing thousands of stores. Here's why

대형 소매 약국 체인들 문을 닫는 이유

- CVS, Walgreens 그리고 Rite Aid는 아마존, 약국을 같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그리고 Dollar General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점의 문을 닫고 있다.
- 특히나 지난 Rite Aid의 파산은 소매 약국 산업의 오랜 어려움을 반영한다.
- 약국 매출의 대부분은 처방전 접수에서 나온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처방 약에 대한 환급받는 액수(reimbursement rates)가 낮아지면서, 해당 부

분의 수익이 감소했으며, 과자를 비롯한 가정 식품 매출도 감소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모기지은행협회 "연준 금리 인상 사이클 거의 끝나가"

"내년 완만한 경기 침체...3년간 주택 가격 오를 듯"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면서 내년 주택 시장 호조를 예상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마켓인사이드 등 외신에 따르면 MBA는 내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예상치인 440만건에서 19% 늘어난 520만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올해 1조6천400억달러에서 내년 1조9천400억달러(약 2천619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